

# 박봉쪼개 도계역을 꽃동네로



**보살행**

**탄광촌 철도원 백수현 포교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강원도 탄광촌 도계읍, 산과 폐경에서 흘러나오는 물빛조차 진한 햇빛일 정도로 환경이 오염된 그곳에서 연꽃을 피우는 포교사가 있다.

강원도 태백준령의 탄광촌 기차역에서만 20년을 묵묵히 근무한 철도정리원 백수현 포교사(41세·조계종 포교사단 강원포교팀원)는 하루 70대의 기차가 오가는 도계역에서 열차운전 및 신호를 취급하는 3급 말단 철도공무원이다.

개 만든 것이다.

이 동산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의 노인, 어린이, 주민들이 찾는 독특한 쉼터가 되고 있고 이에따라 도계역은 하나의 작은 공원이 되어버렸다.

선로변에서 붉은기를 흔들며 육중한 열차를 출발시킨 백수현씨가 역사로 들어왔다. 백씨는 역사내 시냇가에서 민물고기와 개구리를 보며 즐거워 하는 승환(3세)이에게 다가가 생물의 종류와 생태를



▷대합실내 조성된 작은 공원앞에서 즐거워 하는 사람들에게 백수현 포교사(가운데)가 민물고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불교공부 쉬지않고**

**지역포교 선봉장**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옆에 있던 승환이 이모 흥은진씨(24세·수원시)는 "딱딱하게 느껴왔던 역이 이렇게 이롭답게 꾸며지니 마음까지 포근해져요"라고 말했다.

깨끗한 환경구구에 양장식계 된 계기를 묻자 백포교사는 대뜸 "몇 년간 불밭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포교사가 됐지만 딱히 할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문득 내가 지리 한 곳에서 남을 위한 무언가를 하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법당의 부처님을 보며 때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이동산을 꾸미게 됐지요"라고 말한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옆에 있던 승환이 이모 흥은진씨(24세·수원시)는 "딱딱하게 느껴왔던 역이 이렇게 이롭답게 꾸며지니 마음까지 포근해져요"라고 말했다.

깨끗한 환경구구에 양장식계 된 계기를 묻자 백포교사는 대뜸 "몇 년간 불밭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포교사가 됐지만 딱히 할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문득 내가 지리 한 곳에서 남을 위한 무언가를 하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법당의 부처님을 보며 때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이동산을 꾸미게 됐지요"라고 말한다.

백포교사는 3월부터 2달동안 혼자서 하루 12시간의 근무중 4시간의 야간 휴식시간과 격일휴무를 반납하며 역 내·외부를 꾸렸다. 공공근로 사업장과 실개천, 광산, 농장을 오가며 조경수와 페어피프 스킴으로 화분, 폐복제, 벽돌, 나무껍질 등을 구해와 손수 역 안팎을 꾸렸다. 박봉이 사달리에서도 70여만원의 사비도 들었다.

덕분에 공원이 된 도계역은 주위에서 유명해졌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한다. 아이들이 뛰놀며 공터가 텅 비어 버려지기도 하지만 백포교사는 웃으면서 저녁

휴식시간에 많았어 복귀한다.

백포교사는 "요즘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기차에서 내려 1시간정도 머물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며 잠시나마 자연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포교사는 98년부터 강원불교대학과 불교아카데미 통신반으로 등록해 교리이론을 반복해 들으며 공부하고, 휴무일에는 원근거리의 법회를 찾아다니며 불교공부를 했다. 올해 8월에는 철도청으로부터 오름 철도원에 선정되기도 한 그의 꿈은 지역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 참선으로 주인되세요 결눈질 말고 굳건하게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불교를 기복적으로 믿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복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형태입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면 영험이 빨리 온다는 말만 들리면 올바른 종교생활을 뒤로하고 그 영험을 빨리 보기 위해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나 예수, 조상 등 위대한 다른 힘에 의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즉 절대자, 능력있는 자 등에 의지해 그들의 힘에 의해 내 자신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을 타력신앙이라 합니다. 그러나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종교를 믿던 맹종이나 맹신하게 되는 불안한 신앙형태를 벗어날 수 있고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



**성해스님**  
선학원  
중앙선원장

때문에 70살 할아버지도 합부로 받달을 못잡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뒷사람 노릇을 한다해도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도 지위를 내 놓으면 허망합니다. 그러나 참선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 나이를 먹는 만큼 그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실력 자신의 근기가 약하고 지혜 부족하다라 1년을 해서 안되면 10년을 해야지, 그 것도 안되면 일생을, 아니 다음 생까지라도 꾸준히 참선을 해야겠다고 원력을 내세우. 사람의 일이 잘못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마음을 다시 먹어 일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두번 하다가 힘들다고 마음의 고삐를 늦추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겠다는 초지일관한 마음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마음이 단단해 집니다. 마음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의 정신이 마음의 병을 못 만들고 또 복식호흡을 하게되면 병이 육체에 침범하지 못해 심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 1년 안되면 10년 아니면 평생동안 꼭 자신 되찾자

갑니다. 특히 불교를 배우다 보면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력신앙인 동시에 참선입니다. 선리(禪理)를 무장해서 선문(禪門)에 들어오면 결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곳을 방문할 때 쉽게 그곳을 찾아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웬지 모르게 어색하고 목적지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참선도 이와 같습니다. 선리(禪理)를 알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낮 놓고 그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박사까지, 밥맛, 동서, 노소, 남녀의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선공부입니다. 참선은 책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가 3년, 5년만 참선을 잘 해 놓으면 이미 인격에 무게가 실려 있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번뇌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참선을 통해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선의 묘미는 직접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선리(禪理)로 무장될 때까지, 참선의 자세가 몸에 익을 때까지 마음 바귀 먹지 말고 참선을 한 번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신행칼럼**

11월 1일(수)

■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중 교수를 초청해 다보법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11월 2일(목)

■ 노인선원 순례법회=능인선원은 흥원암과 건봉사를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병행한다. 출발은 오전 5시 30분 능인선원 정문 앞 (02)577-5800

11월 3일(금)

■ 불림사 백고법회=창원 불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을 초청하여 백고법회를 병행한다. (055)267-6336

■ 포교승가회 21세기 포교방향 토론회=조계종 포교승가회는 오후 1시 중앙승가대정전에서 '21세기 포교방향 및 포교방법론'을 주제로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929-1528

11월 4일(토)

■ 노인선원 보살계 수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상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초청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병행한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선원장 지광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02)577-5800

■ 동산반야회 청화스님 초청법회=동산반야회는 오후 2시 동산교육회관에서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 서울 봉은사 3천배 철야정진법회=봉은사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대웅전, 법당, 선불당 등 봉은사 주요전각에서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병행한다. (02)511-6070

■ 구미 도리사 보은전 지장보살 점안법회=구미 도리사는 오전 10시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을 주법사로 보은전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병행한다. (054)474-3737

11월 5일(일)

■ 구인사 대조사전 낙성식=천태종 구인사는 오전 10시 30분 중창 조 상원각대조사 존상 봉안 및 대조사전 낙성식을 병행한다. (043)423-7100

■ 한국불교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은 오전 11시 연구원 대법당에서 불언 이기영 박사 제 4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02)3411-6167

■ 유니텔 불교동호회 해국스님 초청법회=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는 오전 10시 동국대 정관에서 제주 남국선원 해국스님 초청법회를 병행한다. 011-226-9477 오기석

■ 구미 남화사 점안법회 낙성식=구미 남화사는 오전 11시 정암원 낙성법회를 병행한다. (054)452-6568

**생활속의 불교**

**下心, 수행의 첫 걸음**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손을 관 밖으로 내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내 손을 볼 수 있게 하라."

"공수래 공수거!" 만인의 부러움을 살 만큼 큰 재산을 모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 '공수래 공수거'란 말은 결코 물질만을 대상으로 한 경구는 아니다. 마음까지를 포섭한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통해 '공(空)'을 강조하셨다.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고(空), 따라서 '내가 한 일이란 것 또한 없음(空)'을 일깨워 주시으로써 무위의 삶 즉, 자유인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자유인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마음'을 너무 좁게 쓰기 때문이다. 사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그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열린 마음, 빈 마음인데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닫힌 마음으로 살게 된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자기 사랑이란 참다운 사랑이 아니다. 뒤집힌 꿈일 뿐이다. 그리고 그 꿈은 온갖 번뇌를 길러내는 자기 속박의 온상이다. 예컨대 아만과 아집이라는 것만 버려도,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만 버려도 삶이 얼마나 출가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짜증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빈 마음이 되라. 열린 마음이 되라. 잘 안되거나 노력하라. 되는 것 보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마음공부가 아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요 공부다. 그것이 곧 하심(下心)이다.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울타리를 헐고 저 넓은 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허공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다.

진정 자기를 사랑하려면 아만·아집·아상을 버려라. 그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고 불발공부의 길이다. 그래야 중생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나로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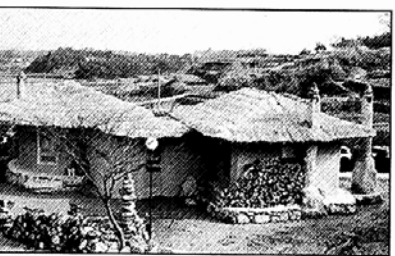
龍眼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품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동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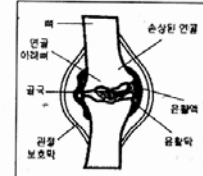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주택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인산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담이 없이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 IMF 다이어트 인기 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정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인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이성물 이용한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혁연한 화제만발

잡아주며 몸이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장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회망을 주는 다이어트 거دم테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 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동태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열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희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액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체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트'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비싼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판방'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1 상담문의 ☎ (02) 3437-8282